

박창훈 목사님, 안녕하세요. <뉴스앤조이> 강도현입니다.

2019년에 한 해도 소중한 후원으로 저희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신 목사님과 언덕교회에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9년도 이렇게 지나가는군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시간이 빠르게 가버립니다. 아직은 한참 젊지만 점점 포기해야 하는 것들이 많아지는 걸 느낍니다. 제가 <뉴스앤조이>에 온 지 벌써 만 4년을 넘습니다. 5년이면 재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여전히 늪에서 헤어 나오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 문제도 포기해야 하는 리스트에 담아야 하나 봅니다.

얼마 전 영화 <겨울 왕국 2>를 두 번이나 봤습니다. 한 번은 작은 아이와 더빙 버전을, 한 번은 큰 아이와 자막 버전을 관람했는데요. 참 볼만한 영화였습니다. 주인공 엘사의 노래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There is part of me that longs to go into the unknown." 내 마음에는 미지의 세계로 가고픈 열망이 있다는 것. 제 가슴이 뛰더군요. 제가 4년 전 <뉴스앤조이>에 온 것도 미지의 세계를 향한 열망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그 미지의 세계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사자와 어린 양이 뛰놀고 어린이가 독사 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세상.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 나라를 갈망하는 마음이 저를 여기까지 밀어넣었습니다.

때로는 그 미지의 세계로 가는 길이 참 험난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지쳐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분명 오기 때문입니다. 저는 역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문제가 많지만 계속해서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단지 나선형 스프링처럼 돌아갈 때가 있을 뿐이죠. 교회에 대해서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진 후로 지금까지 교회는 항상 자신과 씨름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 긴 세월 동안 무너지지 않고 지금까지 빛나고 있습니다. 그 빛나는 역사를 누가 이어 왔습니까. 교권주의자들, 권력자들이 그 역사의 주인공일 수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삶을 내려놓은 이들이 역사의 주인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당신의 자녀로 세우십니다.

함께 힘을 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지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세상, 우리가 바라는 교회는 분명 올 것입니다. 새로운 운동이 여기저기서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교회에 청년이 없다고 하지만 기독 활동가들의 면면을 봐 주십시오. 적은 무리여도 30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뉴스앤조이>도 2, 30대가 주축입니다. 새로운 세대가 만들어가는 운동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미지의 세계,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한 걸음 더 이끌어 가게 될 것입니다.

2020년은 <뉴스앤조이>가 창간된 지 20년째 되는 해입니다. 지난 4년간 지속 가능성을 최우선 순위로 두었다면 앞으로는 한국교회에 저널리즘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데 힘을 쏟으려 합니다. 펜이 바로 서 있어야 권력이 견제되고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다고 역사가 증언합니다. 특별히 교회 일부 세력이 병리화되고 과잉 대표되는 작금의 상황에서 진정성과 역량을 겸비한 저널리즘의 존재는 더욱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기사를 길러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절감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팩트를 수집하고 그 안에서 진실을, 더 나아가 진리를 찾아내 세상에 알리는 것은 젊은 패기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만큼 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동안 지속 가능성에 온 힘을 기울인 이유도 기자 생활을 최소한 5년 이상, 아니 10년은 해야 '저널리즘'이라는 말에 걸맞은 글을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주년이 되는 2020년에는 <뉴스앤조이>의 사명을 되돌아보고 재정비하는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2000년과 2020년의 한국교회는 완전히 다른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뉴스앤조이>의 사명뿐 아니라 한국교회의 사명을 재점검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앞으로 20년의 방향을 점검하면서 후원 교회와 후원자님, 독자님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온 사회가 '90년생'을 이야기하는 와중에 저희도 90년대생 취재기자를 새롭게 맞아 들였습니다. 경영 상황이 녹록치 않지만 현장을 누비는 것이 <뉴스앤조이>의 핵심 가치라는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내딛습니다. 젊은 기자들의 활약을 기대해 주십시오.

여전히 파도는 높고 육지는 보이지 않습니다만 이 항해는 신나는 모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배에 우리는 함께 몸담았습니다. 그렇게 1년을 또 함께 보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덕교회와 함께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2020년에도 함께해 주십시오. 이 여정의 끝을 함께 볼 때까지 힘내십시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강도현 올림

후원금 수령증명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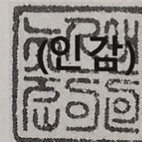
언덕교회 귀중

| 적요 | 기간 | 금액 |
|--|-------------------------------|-------|
| 후원금 | 2019. 1. 1.~ 2019. 12. 31. | 60만 원 |
| * 위 금액은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후원해 주신 내역을 집계한 것입니다. | | |

상기와 같이 후원금을 수령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19 년 12 월 31 일

단체명 뉴스앤조이



대표자명 : 강도현
주 소 : 서울시 중구 퇴계로36가길 97, 1층
연 락 처 : 02-744-4116